

부산대 건축학과 BK21 FOUR 사업단 주관 아시아경관디자인 학회 부산대회 개최

[이영실]

부산대학교 건축학과 BK21 FOUR 사업단(쇠퇴도시 유휴공간을 활용한 생활SOC 혁신디자인 교육 연구단, 단장 우진구 교수)은 17일 오후 1시 부산 부산진구 경암교육문화재단 경암홀에서 '아시아 경관디자인학회 2023부산대회 및 아시아도시경관상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아시아의 도시경관디자인 연구와 발전에 기여해 온 '아시아경관디자인학회(ATDeS; Asia Townscape Design Society)'는 올해 '도시경관자원의 활용을 생각한다-자연자원에서부터 빈집까지-'를 주제로 한중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강연과 연구발표를 갖는다.



이번 부산대회에서는 사토 아키라 일본 후쿠오카시 도시경관실장이 <후쿠오카시의 도시경관>을, 이영범 건축공간연구원장이 <인구감소시대의 로컬지향 도시재생 경관>을 주제로 강연한다.

도시경관 연구발표로는 아리마 타카후미 일본 사가대학 교수가 <다양화되는 중심 시가지의 공적 영역이 만들어 내는 경관>, 오타 겐이치로 일본 나가사키현립대학 교수 등이 <도자기 산지에 있어서 원산지(ROO)효과의 실증분석>, 리펑위 중국 중앙미술학원 교수가 <문화적 경관의 공동 건설과 운영>, 부산에서 태운재 부산 영도구 팀장이 <영도구 봉산마을의 빈집을 활용한 마을 재생>을 발표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도시 경관 형성에 기여한 도시·지역·사업을 선정해 시상하는 '아시아도시경관상' 시상식도 함께 이뤄진다.

'아시아도시경관상(ATA; Asian Townscape Awards)'은 유엔하비타트 후쿠오카본부, 중국의 아시아하비타트협회, 후쿠오카 아시아도시연구소, 아시아경관디자인학회, 한국의 건축공간연구원이 주관해 아시아 사람들의 행복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지난 2010년부터 13년간 아시아 16개국, 116개 도시의 158개 프로젝트를 시상했다.

올해는 한국(3)과 중국(2), 베트남(1), 스리랑카(1), 일본(1), 홍콩(1)의 9개 도시 및 기관을 선정해 이날 시상한다.

2023 Asian Townscape Awards Ceremony & Asia Townscape Design Society 2023 Busan Conference

Considering the Utilization of Townscape Resources - From Natural Resources to Vacant Homes

2023.11.17(FRI), Kyung-Ahm Hall, Busan, Korea

08:30 - 12:30	김관문씨(부산) 등 도시경관 시상
13:00 - 15:00	아시아도시경관상 2023 부산대회 (시회: 홍동기 특임교수, 유승대)
13:00	개회식: 시가지 회복을 위한 아시아경관디자인학회 회장
13:05	환영사: 우진구 부산대학교 교수
13:10	강연 1: 서로 아끼기 영도구에서 도시경관 실험 <후쿠오카시의 도시경관>
13:30	강연 2: 다양한 건축공간연구회 회장, <인구감소시대의 로컬지향 도시재생경관>
13:30	연구발표:
13:50	1) 아리마 타카후미 사가대학 교수, <다양화되는 중심 시가지의 공적 영역이 만들어 내는 경관>
	2) 오타 겐이치로 나가사키현립대학 교수, <영도구 봉산마을의 빈집을 활용한 마을 재생>
	<도자기 산지에 있어서 원산지(ROO)효과의 실증분석>
	3) 리펑위 중국 중앙미술학원 교수, <문화적 경관의 공동 건설과 운영>
	4) 태운재 부산 영도구 팀장, <영도구 봉산마을의 빈집을 활용한 마을 재생>
	4) 태운재 부산 영도구 팀장, <영도구 봉산마을의 빈집을 활용한 마을 재생>
14:55	폐회식: 아시아경관디자인학회
15:00	축식
15:00 - 15:30	축식
15:30 - 18:00	아시아도시경관상 시상식 (시회: 정재훈 교수, 문두리 스피커, 부산대)
15:30 - 15:35	개회 인사 (시회)
15:35 - 15:55	인사 말씀 (각 5분):
	부르노 태운재 본부장 / UN 하비타트 아시아 태평양 지역본부
	이영범 회장 / 건축공간연구원 (AURR)
	시모카와 슌지 부이사장 / 후쿠오카 아시아도시연구소 (AURC)
	최정민 총장님 / 부산대학교
	전영민 이사장 / 경원교육문화재단
15:55 - 16:05	2023년 아시아도시경관상 심사위원 소개: 사카이 타케후 / 아시아경관디자인학회 회장
16:05 - 17:35	각 도시 시상 (수상 작품 소개 각 5분)
17:35 - 17:40	폐회 인사 / 폐회식 마무리 회장: 아시아 하비타트 협회 (Asian Habitat Society)
17:40 - 18:00	기념 촬영
18:30 - 20:30	연찬식

이 상은 아시아 각 지역의 우수 경관 사례를 발굴하고 국제적으로 홍보하는 동시에 우수 도시경관에 대한 전문가, 공무원, 일반시민의 인식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서 아시아 경관디자인학회...빈집 활용방안 모색



아시아 경관디자인학회, 부산서 개최

[건축공간연구원 웹사이트 캡처]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부산대 건축학과 BK21 FOUR 사업단은 17일 오후 1시 부산 부산진구 경암교육문화재단 경암홀에서 아시아 경관디자인학회 부산대회와 아시아 도시 경관상 시상식을 개최한다.

유엔 해비타트 후쿠오카본부, 후쿠오카 아시아 도시연구소, 아시아 해비타트 협회, 아시아 경관디자인학회, 건축공간연구원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학회에서는 '도시경관 자원의 활용을 생각한다'를 주제로 빈집을 비롯한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도시 경관을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사토 아키라 일본 후쿠오카시 도시경관 실장이 '후쿠오카시의 도시경관', 이영범 건축공간연구원 원장이 '인구감소 시대의 로컬 지향 도시재생 경관'을 주제로 강연한다.

또 태윤재 부산 영도구 팀장이 '영도구 봉산마을의 빈집을 활용한 마을 재생' 사례를 발표하는 등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관계자들이 도시경관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

주최 측은 이어 올해 '아시아 도시 경관상' 수상자로 선정된 6개국, 9개 도시와 기관에 시상한다.

한국에서는 서울 강동구 '구천면로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서울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 조성', MBC 빈집 재생 프로젝트 '빈집살래 in 어촌'이 수상한다.

youngkyu@yna.co.kr